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저물어 가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린이날(5월 5일)이 있고, 자녀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자는 어버이날(5월 8일)이 있으며, 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스승의 날(5월 15일)이 있고,

나이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성년의 예우를 받게 되는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이 있으며,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한 몸처럼 사랑하자는 부부의 날(5월 21일)이 있어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사랑의 행사가 가정의 달 행사였다.

새들은 짝짓기하면 알 낳을 동지인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친다. 사람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夫婦)가 되면 새로운 보금자리인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며 산다. 가정이란 부부

를 중심으로 혈연관계자가 모여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말하며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이 공동 생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도우면서 살고 있다. 사랑이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생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가정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최소의 단위의 삶의 틀을 말하며 가정에는 인적 구성인 가족이 있고 가족이 모여 사는 물리적 주거환경인 집이 있다. 가정의 구성은 인위적 관계로 맺은 부부가 있고, 부부의 사랑의 열매라 할 자녀가 있다.

가정은 부부나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이 있고, 한집안에 부모 자녀 조부모까지 어울려 사는 대가족도 있다.

사회의 변천과 직업이 다변화되면서 직장을 따라가는 관계로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으로 변천 발전하고 있다. 보금자리는 새들의 둥지처럼 편히 살 수 있고 주변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있

으며 자유롭게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심적으로 어려운 일도 가정 안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벗어나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가정의 보금자리다.

새들은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끼를 친다. 새들의 보금자리는 새끼들이 자라는 데 도움을 주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만들고 있다. 가정의 보금자리는 부부가 만들어 부부의 사랑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하는 곳이다.

자녀는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의 효도를 배우면서 자란다. 부부의 날은 부부가 두 몸이 한 몸 되어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뜻에서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랑은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줄 수 없고 도와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이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랑하려면 주려는 생각이 앞서야 하고 주려는 것을 만들어 꾸준히 주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어린이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가정에서 자녀는 아버비를 돕고 따르는 효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가정은 교육의 원천이고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다. 가정교육 하는 부모는 가정교육에서 스승의 사랑과 존경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부부는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며 부모에 효도하는 가정을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며 이룩해야 한다. 가정은 서로 돕는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보금자리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은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보금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을 만들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만들고, 사랑의 마을이 모여 국가를 만들 때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랑이 결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므로,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돕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정을 만드는데 힘써 실천해야 한다.

기고

늘어가는 노인학대, 해결책은 적극적인 신고

노인의 기준은 모두 알고 있듯 65세 이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고령화사회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3%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버타운,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 중 62%가 자녀, 배우자 등 부양의

무 가족이며 이에 따라 가정 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학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치매, 건강문제 또는 가해자가 자녀임을 문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문구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과 같이 노인학대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의 실태를 알리고 노인인 권을 증진하기 위해 UN과 세계 노인학대 방지망(INPEA)이 함께 지정한 날인 만큼 다가올 6월, 가까운 가족,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가져보자.

박희원/순천시경무과경력계경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

해마다 강력범죄는 늘어나는 실정이고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또한 다각적으로 구축해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을 한 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여기서 피해자 보호 중에 첫

번째로 행해지는 신변보호가 있다.

신변보호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심의 후 신변보호를 받게 된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는 가해자 경고,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항목을 설정해 신청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워치는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가 가능한 보호 정책이다.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긴급버튼 하나로 112에 바로 신고되는 동시에 사전 지정된 보호자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 안내 및 캠페인 실시로 국민 상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도 중요할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과 국민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된다면 범죄피해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것 같다.

민은정/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사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